

인생의 전환점을 찾아 떠난 스위스, IFYE(국제교환훈련)에서 얻은 것들

2023년 스위스IFYE 수료자
경소정(경희대학교)

저는 26살에 강원도 영월로 혼자 귀농·귀촌했어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시골로 내려와 사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도 지역에 자리 잡지 못했어요. 그러던 와중 우연히 신문에서 '4-H국제교환훈련(IFYE)' 모집 공고를 보았고, 제 삶을 환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던 일들을 모두 중단하고 스위스로 2달간 농활을 떠났어요.

스위스를 1지망으로 선택했던 이유는 크게 3가지예요.

- ① 강원도 지역과 농업환경이 유사하여 한국에 적용 가능한 일들이 있을 것으로 기대
- ② 비교적 작은 국가이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을 둘러볼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예상
- ③ 다민족 국가로서 영어를 구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추측

IFYE에 참여한 목적은 이 프로그램을 인생의 전환점으로 활용하기 위함이었어요. **해외에서 한국에 적용할 만한 최소한 1가지 이상의 사례를 찾아오겠다는 목표가 있었죠.** 그래서 참가하고 싶은 국가를 신중하게 선택했어요. 떠나기 전에 실행 목표도 크게 2가지로 설정 했어요.

- ① 최대한 많은 식료품점과 시장을 살펴보기
- ② 호스트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파악하기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는 하루도 쉬지 않고 돌아다녔어요. 운이 좋게도 호스트가 사는 집 근처에는 대중교통이 있었거든요. 교통비를 100만원 가까이 사용하면서 최대한 많은 도시를 돌아다니며 농식품의 특징을 파악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호스트를 통해 농장에 대한 정보를 다양하게 얻으려고 매일 새로운 질문도 했고요. 그렇게 저는 목표한 대로 한국에 적용할 사례를 스위스에서 찾아왔어요. 이제 앞으로 스위스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강원도 영월에서 꿈을 펼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에요.

제가 당부하고 싶은 말은 IFYE를 가기 전에 꼭 목표를 설정하고 가시기를 권해드려요. 단순히 여행한다는 생각으로만 떠난다면 분명히 실망하는 순간들이 생길 거예요. 마냥 즐거운 일들만 있을 거라는 장담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마다 목표가 있다면 마음을 다잡을 수 있어요. 힘든 환경 속에서도 무엇을 얻어 갈 수 있는지 찾을 수 있고요. 그러니 꼭 목표를 세워주세요. 몇 달 동안 해외에서 살아봤다는 경험만 갖고 오기에는 너무 아쉬운 기회니까요.

지금부터는 스위스에서 2달간 머물렀던 호스트 가정을 소개할게요. IFYE는 호스트 가족에 따라 그곳에서의 생활이 결정돼요. 그러므로 호스트 가족들이 가진 IFYE에 대한 관점, 삶의 방식, 주변 환경을 중점으로 느끼고 경험했던 에피소드들을 말씀드릴게요.

1. 20년 넘게 IFYE를 지속해온 정 많은 젖소 농장

- 기간 : 2023.06.20.~2023.06.23
- 주소 : Michael Huber, Dorfstrasse 60, 8585 Mattwil
- 가족 구성원 : 부부(60대), 아들(30대)

“마을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는 Milk Cow 농장”



스위스 젖소 농장은 평균적으로 젖소를 40~45마리 기르지만 여기 농장에는 78마리의 젖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동네 사람들이 사일리지(사료)를 만들어 줘서 설비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들에게 더 투자하고 생산한 우유 매출액에서 비율로 수익금을 나눠 갖는 형태로 운영해요. 협력하는 다른 농장은 총 5곳이에요.

“다름을 인정하는 개방적인 사고방식”

노부부가 저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은 ‘필요하거나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편하게 얘기해’예요. 20년 전부터 IFYE를 해왔기에 문화 차이를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요구사항을 쉽게 말하지 못하는 것 또한 알고 있어 나에게 계속해서 괜찮은지 물어보았어요. 그리고 제가 작성한 프로필을 꼼꼼히 읽어보고 3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려고 노력하였어요.



“자동차 없이 살 수 없는 시골 마을”



보통 1곳의 호스트 가정에서 2주 이상 머물러요. 하지만 2023년에는 IFYE를 신청한 호스트 가정이 부족해 3주 이상 머물도록 일정이 정해졌어요. 제가 이곳에서 3일 동안 머물렀던 이유도 일정이 맞지 않아서였죠.

지나고 보니 짧게 머물러서 다행이었어요. 대중교통이 아예 없는 시골이어서 호스트 가족이 밖으로 데려가 주지 않으면 꼼짝없이 집에만 있었을 거예요.

2. IFYE 친구들끼리 만나 부부가 된 Dick family

- 기간 : 2023.06.25.~2023.07.23.
- 주소 : Andreas & Ruth v. Niedrhausern, Ziegelriedstrasse4, 3262 Suberg
- 가족 구성원 : 부부(50대), 첫째 딸(18살), 둘째 아들(16살), 막내딸(14살)

“각자의 삶을 바쁘게 살아가는 가족 구성원들의 일상”



호스트 파파의 직업은 엔지니어링, 마마는 간호사예요. 부부의 어릴 적 IFYE에 대한 추억으로 매년 사람들을 초대하는데요. 가족 모두 각자의 일정이 있지만 돌아가면서 저와 시간을 보내요.

특히 호스트 마마는 계획을 세우는 걸 좋아해서 일정을 따로 만들어 줬어요. 막내딸 참관 수업, 동네 친구 농장들 소개, 시내 구경, IFYE 친구 모임이나 파티 등 다양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줬어요. 심지어 여름휴가도 같이 갔어요.

Dick 가족은 IFYE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함께 추억을 쌓는 일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해요. 그래서 결혼 후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년 IFYE를 초대하는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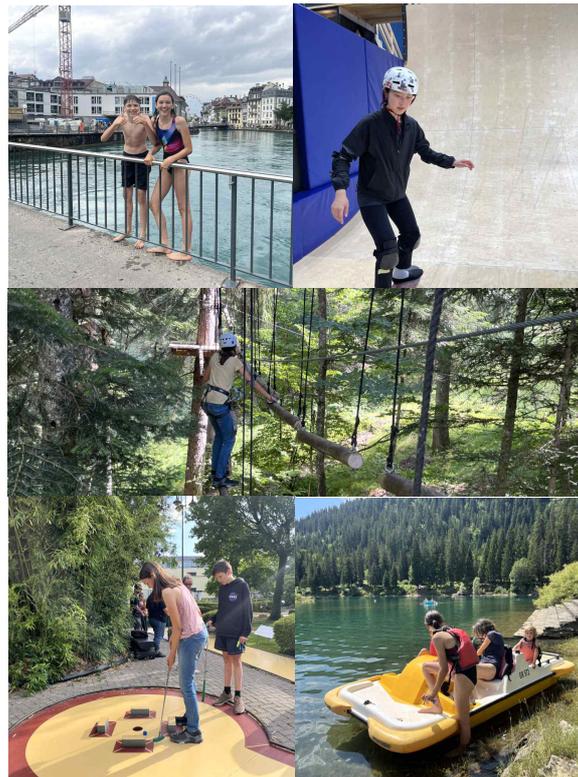
“아이들과 함께해 더 즐거운 IFYE 생활”

아이가 있는 호스트 가정들이 많은데 교육 목적으로 IFYE는 최고예요. 집에서 다른 나라 문화도 배우고 독일어 이외의 언어 습득도 할 수 있어요. 이 밖에 다른 장점들도 많지만 제가 좋았던 점은 크게 2가지예요.

- ①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음
- ② 음식을 골고루 먹어볼 수 있음

아무래도 아이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 육체적으로 즐길 수 있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덕분에 여러 액티비티를 경험했어요.

첫 호스트 가정에서는 빵과 치즈 위주의 식사만 했어요. 아이가 있는 집이 아니면 음식을 다양하게 먹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 가정에서 요구르트나 시리얼도 골고루 맛도 보고, 스위스 가정식도 자주 먹었어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운 친환경적인 습관들”



두 번째 호스트 가정에서는 일상 속에서 자연적이고 친환경적인 삶의 방식을 엿볼 수 있었어요.

스위스는 집마다 정원을 가지고 있어요. 정원에서 각종 허브를 키워 샐러드로 먹기도 하고, 베리를 따다 잼을 만들기도 해요. 당연히 모두 유기농이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모두 식집사예요.

스위스 사람들은 걸거나 자전거를 타는 일이 생활이에요. 호스트 가족 모두 매일 자전거 타고 등학교나 출퇴근을 해요. 놀러 가도 꼭 자전거를 챙겨 가요.

또 일회용품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노인이 되어서도 무거운 유리를 사용하더라고요. 호스트 마마는 도시에 나갈 때마다 빈 유리병을 챙겨 나가 장을 봐요.

재활용의 개념이 분리수거가 아닌 다시 사용하는 재활용이라 가정에서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준 여름휴가, Swiss O Week”

40년 된 노란 버스를 타고 열흘 동안 Flims-Laax로 여름휴가를 갔어요. 달리기 모임을 하는 사람들과 Orienteering이라는 스포츠 챔피언십에 참여하기 위해 500년 된 숙소에서 함께 지냈어요.

모두가 신경 써 줘서 즐거운 추억이 많은데, 샤워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은 조금 끔찍했어요. 다들 집 앞 분수대나 호수에 풍당 해서 씻더라고요. 비누칠은 당연히 하지 않고요. 자연적이어도 너무 자연적이예요.

그래도 스위스에서 보냈던 휴가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신선한 행복함을 느낀 시간이었어요.

무엇보다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을 경험해 봐서 좋았거든요.

Swiss O week에 참여하기 위해서라도 언젠가 꼭 다시 만나러 올 거예요. 내 사랑 Dick family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3. 처음으로 IFYE를 초대한 깊은 산속의 동물 농장

- 기간 : 2023.07.23.~2023.07.27
- 주소 : Doris & Peter Zimmermann, Wattwilerhof 2, 562 Siglistorf
- 가족 구성원 : 부부(60대), 딸(30대)

“다시 만난 미국 IFYE 친구 Nora”



예정에 없던 호스트 가정에 5일 동안 머물렀어요. 마지막 호스트 집에 일이 생겨 근처에 미국에서 온 IFYE 친구가 지내는 가정에서 함께 지냈어요.

Nora는 미국에서 소 농장을 운영하는데 스위스에서 소를 키우는 농장만 다녔대요. 인적이 드문 곳에만 지내서 도시 구경을 거의 못 했더라고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식사하고 농장 일과 IFYE 과제에 할애했다고 해요. 아쉬운 부분들이 꽤 있다고는 하지만 큰 문제 없이 잘 지내더라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IFYE 친구와 한 집에서 지내는 경험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서로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어서 더 가까워질 수 있던 시간이었거든요.

“영어는 못 하지만 마음으로 소통하는 사람들”

이 농장에서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은 딸인 Bettina뿐이었어요. 그래서 Nora가 Bettina가 오기만을 기다리더라고요. 하지만 Nora는 노부부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었고, 노부부도 말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어요.

Host mama는 하루 종일 Nora와 시간을 보내요. papa가 Nora의 소 농장에 관한 질문을 1개씩 꼭 해요. 대화는 원활하지 않지만 서로가 마음을 쓰니 의사소통이 가능했어요.



“은퇴 후 귀농·귀촌해 시골에서 살아가는 Host Family”



Host Family는 약 8년 전까지는 도시 근교에서 살았다고 해요. 그러다 Host papa가 은퇴하고 농사를 짓기 위해 시골로 내려와서 지내는 중이라고 해요. 마트를 가기 위해서는 차로 30분은 나가야 하는 시골에서요. 제가 머물렀던 가정 중에 가장 외진 곳이었죠.

이 농장은 소와 거위를 주로 키웠어요. 매일 쥐를 잡아 오는 고양이도 있었고, 소와 거위를 모는 강아지도 있었어요. 여기서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소를 이름으로 부른다는 거였어요. 참고로 스위스의 꽤 많은 Cow 농장에서는 소에게 이름을 붙여 가족처럼 키워요.

4. 일손이 부족해 IFYE를 신청한 젊은 부부

- 기간 : 2023.07.27.~2023.08.19
- 주소 : Andrea & Peter Keller, Hauptstrasse 36, 8225 Sibingen
- 가족 구성원 : 부부(20대), 첫째 딸(3살), 막내아들(1살)

“첫인상이 좋지 않았던 젊은 부부”

첫 만남에 아이 2명을 보고 걱정이 앞섰어요. 3살짜리 딸은 계속 소리를 지르고, 1살짜리 아들은 마당을 기어다녔거든요. 그리고 Host papa는 영어를 할 줄 몰라서 제가 말으 걸면 피하고요.

첫날 저녁 식사 때, Host mama가 저에게 제가 IFYE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에 맞춰서 베이비 시터를 구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둘째 날 오후에는 청소를 도와주고 있는데 갑자기 식탁에 앉아서 혼자 커피를 마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밥을 주지 않았죠. 이때부터 눈치 싸움이 시작됐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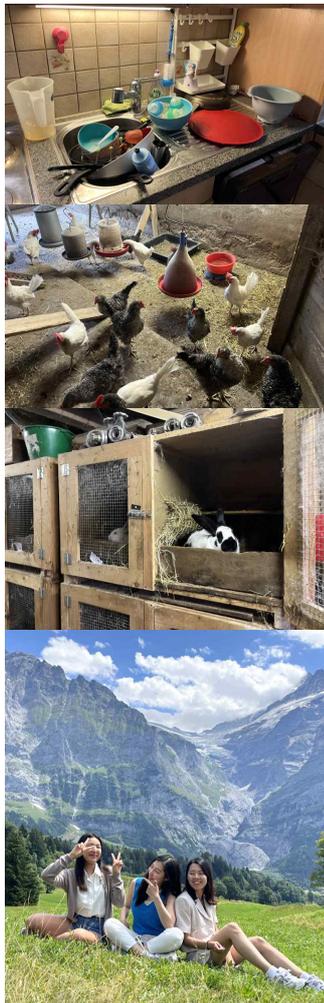
“생존력 만렙, 혼자 살아남기”

첫 만남 때 느꼈던 불안감이 적중했어요. 부부 모두 아이를 돌보면서 농장 일도 해야 했기 때문에 바쁠 것으로 예상했지만 저를 방치하더라고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한국4-H본부를 통해 Swiss IFYE 관계자에게 내용을 전달했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들이 Host Family와 직접 얘기하고 해결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Host Family가 원하는 대로 농장일과 집안일을 담당했어요.

하루 1끼 정도 식사를 차리고 오후 5시부터는 닭, 토끼, 소 밥을 주는 일을 했어요. 그래도 Swiss IFYE를 통해 얘기한 후 Host Family가 아침 시간에는 친구네 농장을 데려가 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낮에는 주로 혼자 시간을 보냈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남은 3주를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는 일이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혼자 몰래 매일 다른 도시를 구경하러 다녔어요. 다행히도 집 근처에 버스가 있었거든요.

취리히 근처에 있는 도시들은 거의 다 가봤어요. 제 목표 중 하나가 최대한 많은 마켓을 살펴보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침 산책을 간다고 하고 도시들을 살펴보고 왔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친구들이 여름휴가로 스위스로 놀러와서 3박 4일 동안 함께 관광을 하기도 했어요.

이 농장에서 얻은 좋은 추억은 없어요. 하지만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최대한 얻어내고자 노력했어요. 그래서 목표가 꼭 있어야 해요.



★스위스 필수 준비물 : 백팩, 등산화, 레인코트, 1인용 돛자리, 등산복(긴바지), 수영복, 구충제

5. Incoming Weekend

- 기간 : 2023.06.23.~2023.06.25.
- 주소 : Schindelboden, 4204 Himmerried

“대화가 끊이질 않는 IFYE 친구들과 관계자들”



첫 만남을 갖는 자리라 모두가 낯설었지만 서로 친해지려고 많은 노력을 해요. Small Talk 문화가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지 끊임없이 말을 걸더라고요. 사실 영어가 능숙하지 않아서 혼자 조용히 걸을 때도 있는데 말이죠.

IFYE는 봉사 단체이기 때문에 관계자도 행사를 처음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Incoming day 둘째 날에는 등산을 6시간이나 했어요. 길을 잃어버렸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말을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말을 걸더라고요. 덕분에 친해져서 정말 좋았지만 2박 3일 동안 면접을 보는 기분이었어요.

6. Hiking Weekend

- 기간 : 2023.08.05.~2023.08.06.
- 주소 : Marbach

“각자의 문제를 안고 생활하는 IFYE”

1달 정도 만에 IFYE 친구들을 다시 만나니까 정말 반가웠어요. 그동안 서로의 근황을 Whatsapp에서나 인스타에서 확인했거든요. 저도 인스타에 열심히 경험한 것들을 올렸고요. 그래서 IFYE 친구들이 저를 보자마자 ‘너 진짜 다양한 경험을 하더라’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각자 나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어요.

1박 2일 동안 지내면서 주로 서로의 근황을 공유했어요. 매일 밤 설거지를 30분씩 해서 손이 시려 힘들다는 대만 친구도 있었고요. 끝나지 않는 집안일과 농장일로 너무 힘들었다는 스웨덴 친구, 일주일 내내 산 중턱에서 독초만 뽑으러 다닌 미국 친구 등 일을 하면서 지내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IFYE는 일을 시키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다들 주로 농장에서만 머물렀어요. 그래서 비교적 바깥 활동을 많이 했던 제가 부러웠던 모양이에요.

아무튼 어떤 Host Family를 만나느냐에 따라 IFYE 생활이 결정되는 것은 분명해요. 이건 당연히 복불복이고요. 좋은 가정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만 해요.

